

韓國傳統建築의 解析과 繼承을 爲한 創造的 『遺傳因子』에 關한 研究

李 培 禾
建 築 學 科

〈요 약〉

우리의 傳統建築에 있어서 사아머니즘의 宗教意識과 農經社會의 影響에 依하여 一定한 Pattern Language가 形成되었다. 文化人類學的으로 建築이 차지하고 있는 Pattern Language의 先驗的인 建築計劃의 原理는 첫째, 風水地理說에 依한 原理였으며

둘째, 生活慣習에 依한 態도와 社會位階의 空間構成·分割의 原理였다.

그러므로 傳統建築을 繼承하기 爲하여 그 原理의 構成因子 가운데 現代를 再創造할 수 있는 GENOTYPE를 抽出해 내는 일이다.

즉 G₁: 『김치』 『깍두기』 『된장찌개』 등의 語彙에 깃들여 있는 韓國의 土着的인 情趣와 같이 先人들의 抒情이 깃든 建築空間— 『온돌』 『내청마루』 『빛마루』 『마당』 『처마』 『토방』 『다락방』 『벽장』의 原型的 Pattern Language를 Design Factors로서 現代建築에 表出시킨다.

G₂: 外形的으로 追求된 風水地理의 建築的 原理를 形式論理로서 채택한다.

G₃: 모듈·抽象的인 形態美學·平面構成的 妙·外部空間構成的 理

Genotype and Theoretical Analysis on the Korean Tradition Architecture

Lee Bae-Hwa
Dept. of Architecture

〈Abstract〉

Religious feeling from shamanism and an agricultural economy society affected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to form a "Pattern Language" in ancient times.

From the point of view of cultural anthropology, the Pattern Language has based on by the original properties, built up by architectural activities, and maintained by the transcendental principles of architectural design.

These principles (1) have a kind of the symbolic theory through Pungsujirisul, (2) reflect the theory about the composition and arrangement of space determined by the hierarchy of social class consciousness and the rules of human settlements.

In fact, these principles imply some elements [GENOTYPE] that are able to lead to the method for transmitting thu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Korea.

G₁) Assumes the archetype of architectural spare in Korea i.e. Ondol · Daechung · Maru · Bygjang · Tobang · Toitmaru · Madang · chuma, as well as the feelings will be characterized in our minds of "Kimchi" "Kaccdugi" and so on.

G₂) Assumes the architectural theory of pungsujirisul.

G₃) Assumes Module, Form Gestaltung, Space Combination in Floor Plan and Exterior Space Design.

1. 序 論

1. 研究의 意義

오늘날 建築界뿐만 아니라 大部分의 學問分野에서 傳統問題에 關하여 매우 眞摯하게 論議되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韓國建築의 實象과 傳統建築의 抽出이라는 問題는 日本治下에서 四半世紀가 지난 現代에 이르러 마땅히 규명되어야 하며 우리의 핏속에 면면히 흐르는 共通된 傳統建築의 맥락을 찾아 外侵에 의하여 崩壞되고 消滅되어 버린 建築文化의 歷史의 名譽와 方向을 追求해야 한다.

2. 研究의 目的

과거부터 現存하는 모든 傳統建築의 遺産들을 連續的으로 繼承發展시키기 위하여 現象學的 그 遺傳因子를 分析理解하는데 그 目的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實證되고 있는 因子들이 意味하고 있는 建築의 機能과 歷史의 表象을 現代建築에 創造의 方法으로 새롭게 變遷시킴으로서 韓國建築의 歷史의 定着地를 되찾고 現時代의 方向提示를 設定하는데 主目的이 있다고 본다.

『美』란 『거짓』과 人爲的 『虛構』가 깃들어 있다면 결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오직 『眞』일 때 영원한 美意識으로 共感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韓國建築의 『眞』이라는 抽象的인 範圍속에 어떠한 形態로 現存하는지 間에 中國과 日本文化의 類似性에 대한 出處關聯을 도의시하고 現代에 이르기까지 韓半島의 氣候와 風習을 배경으로 韓國人의 生活感情으로 昇華되어진 眞實을 研究한다는 것은 매우 中要한 妥當性을 포함하고 있다.

2. 風土에서 오는 構成要因

韓半島는 地政學的으로 世界列強들의 틈바구니에서 生存하여 왔기 때문에 韓國民族이 經驗해 온 文化의 遺産과 精神의 領域은 매우 被効적이었으며⁽¹⁾

自己를 封鎖하고 克己하는 버릇이 있었으며 自己를 적극적으로 挑戰시키지 않고 外部로부터 들어오는 힘에 쉽게 의존한다거나 死者의 靈魂·惡靈 등의 사아머니즘적 生活態度로서 行動倫理를 지켜왔다.⁽²⁾ 사아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적 支配意識은 社會位階秩序를 從屬的으로 構築시켰던바⁽³⁾ 權威主義建築과 一般民衆建築으로 分類派生되었으며 上下身分 秩序體係가 명확했기 때문에 各棟에 대해서 使用者의 身分에 따라서 구별하여 配置하였으며 建築的으로 利用된 各場(Hierarchy of Place)들은 저마다 身分이 정해져 있었으며 意味가 부여되어 있었다.⁽⁴⁾

그리고 中國처럼 끝없는 平原이 펼쳐지고 風景의 變化를 볼 수 없는 곳에서는 建築이나 陶磁器의 빛깔이 질기만 하다거나 험상궂다거나 休氣的인 趣向이 흐르는데⁽⁵⁾ 완만하고 수려한 山川과 四季節이 뚜렷하여 濕潤과 乾燥의 심한 差異로 因하여 收容的 服從的인 態度와 對抗的인 戰鬪的인 二重性格이 우리 民族의 特殊한 氣質로서 갖게 되었다.⁽⁶⁾ 이와같은 無意識的 集團의 遺傳因子들은 內部平面 空間權成을 開放空間으로 自由스러운 動線을 이루었고 民家配置에 있어서도 部落 內部的 部置構造(Spatial Organization) 역시 이와 比等한 概念으로 民家相互間的 Communication의 Network이 形成되어 왔음을 파악할 수 있다.

몇가지 實例를 보면 『房과 房사이』 혹은 『안과 밖』을 얹은 “한지”로서 解結시킨 것은 自然順應과 對人關係에 있어서 感性的 銳敏성과 Privacy에 대한 二重性格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⁷⁾ 심한 暴雨와 모진 바람으로 因하여 지붕의 무거운 重量感과 두툼하고 높은 돌담과 대문은 『家屋과 家屋』 『部落과 部落』을 相互閉鎖시켰으며 또한 防禦적이었으며 集團에 依하여 個人의 人間性이 強要되었던 建築的 構成因子들을 理解할 수 있다.

3. 現時代의 課題

우리 文化의 精神領域속에 西歐的인 建築思想이

(1) 尹泰林 韓國人 p80.

(2) 앞의 冊 p84.

(3) 앞의 冊 p87.

(4) 朱南哲, 朝鮮時代住宅建築의 空間構成에 關한 연구, p74, p81.

(5) 高裕燮, 韓國美術文化史論叢, p110.

(6) 尹泰林, 韓國人, p84.

(7) 朱南哲, 朝鮮時代住宅建築의 空間構成에 關한 연구, pp85, 86.

傳해진 時期는 20世紀 中半이였으며 이 時期의 日本의 支配는 近代建築을 形成시키는데 있어서 肯定的인 面보다는 否定的인 側面이 훨씬 크게 影響을 끼쳤다. 그들은 自己들의 統治目的을 위해서 우리 建築文化의 遺産을 盜用했으며 自己들의 歷史와 文化에 利用하였다.

半世紀 동안의 歪曲된 歷史의 역류와 建築思想의 抹殺로 말미암아 韓國文化는 世界文化圈속에 座標를 잃게 되었으며 이 時代에 敎育받은 一部 建築家들은 植民地 史觀的 建築文化의 解析과 國籍없는 文化類型으로 外國建築을 韓半島에 批判없이 있는 그대로 模倣移植시켰음을 不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獨立以後 四半世紀동안 歪曲되어 온 우리의 固有한 歷史와 韓國文化精神을 바로 잡고 뿌리를 내리기 위한 研究가 함께 並行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被支配의 渦中에 喪失되었던 意志와 傳統性을 回復하기 위한 過渡期였다면 이제 당연히 過渡期를 지난 本軌道로서 傳統建築의 再創造와 繁盛이 要구된다.

W. W. Rostow은 經濟發展段階⁽⁸⁾를 다음 五段階로 色分하고 있다.

첫째: 傳統의 社會

둘째: 離陸을 爲한 先行條件

셋째: 離陸

넷째: 成燃으로서의 前進

다섯째: 高度 大衆消費時代

이 五段階를 다시 다음과 같은 發展段階로 요약하면

첫째 發展段階: 農業社會에서 工業社會로.

둘째 發展段階: 工業社會에서 成熟社會로.

셋째 發展段階: 工業社會에서 새로운 情報社會로서 大別할 수 있으며 오늘날 韓國社會은 첫째 發展段階로 치닫는 開發渡上國家로서 農經傳統社會에서 先進工業國家로 탈바꿈하는 過渡期에 있으며 이 過渡期는 傳統社會의 Pattern Language⁽⁹⁾와 새로운

時代의 System Schema⁽¹⁰⁾가 相互 對應關係를 形成하면서 建築文化의 새로운 모달과 비존을 提示하고 확고한 建築理論과 民族의 信念으로 世界建築의 隊列에 서야 한다.

4. 傳統分析을 爲한 論理的 段階

建築은 人生의 삶을 담은 그릇이요 都市는 여러 種類의 삶의 Pattern Language가 建築機能으로 形象화된 그릇들의 結晶體이며 이러한 建築文化의 表象들은 時代的 遺産으로 表出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時代와 建築은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建築은 時代的 Pattern Language에 依해서만이 반드시 誕生된다. 즉 時代的 상황 [=Pattern Language]이 없으면, 결코 存在할 수 없으며 建築의 外形의 그릇 없이는 時代的 상황은 絕對로 存在할 수 없다고 하는 必然的인 因果關係가 成立하고 있다. 建築의 遺産이란 時代的으로 繼承되고 學習된 類型을 말하며⁽¹¹⁾ 政治, 經濟, 社會, 文化, 藝術 등을 포함하고 있다.

時代는 個人의 人間의 價値 Pattern이 없이는 存在할 수 없으며 個個人間 역시 民族의 傳統과 時代的 集團的 Pattern Language 없이는 存在할 수 없다.⁽¹²⁾ 그러므로 傳統은 個個人間에 依하여 存在되어지고 保存되어지며 創造되어진다.

이와같은 過程에서 우리 祖上들의 人生觀, 世界觀이 흐르며, 精神生活이 表現된 先驗的 意識이 集團類型으로서⁽¹³⁾ 몇 가지 種類로서 Pattern Language를 分類할 수 있으며, 建築의 外形의 System Schema들은 母體로부터 胎兒를 孕胎시키는 수많은 遺傳因子들로서 外形의으로 表出되고 있으며 傳統 繼承의 限界는 現象化된 遺傳因子들의 創造的 再構成을 意味하는 바, 이들 用語의 內容을 Diagram으로 設明하면 다음과 같다.

(8) 現代建築의 이레오르기를 川添登은 <機械의 時代> <民衆의 時代> <民族의 時代>로 나누고 있다. 結局은 Localism을 강조하고 있지만 Rostow는 五段階를 [目的·手段]의 사이에서 機能關係가 成立된 系의 內部로 설정.

(9) Philip Drew Third Generation pp21, 22.

精神構造는 言語에 의하여 표현된다. 思考의 世界는 言語의 體係化作用으로 精神領域과의 關係로서 Language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 바탕위에서 形態群이 創造되어진다고 보았다.

Whorf Wilhelm; by the process, where by he spins a person to produce an infinite variety of unique combination by means of his own creative act. For this reason, I call these system attern Language. 결국 本 論文에서는 文化人類學的으로 어느 집단이 創造해내는 精神的인 領域을 뜻한다.

(10) 앞의 冊, pp. 21, 22.

具體的인 精神作用에 의하여 外形으로 創造된 形態群.

(11) 앞의 冊, pp. 21, 22.

(12) Jung은 이것을 集團의 無意識으로 표현.

(13) C. G. Jung의 心理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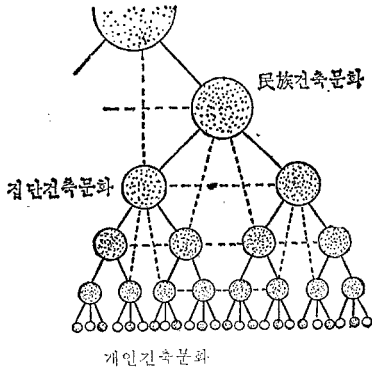


그림 1. Pattern Language 내부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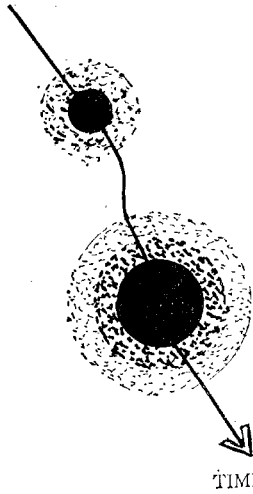


그림 2. Schamata의 形成過程

이 遺傳因子들이 本質⁽¹⁴⁾에 있어서 離脫하지 않고 어떠한 方向性을 가지고 있을 때 “『傳統決定體』⁽¹⁵⁾(Traditional Determinism)을 形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에서 前提하고 있는 論理展開를 다음 式으로

(14) Heidegger가 말하는 Existenz이며 어느 集團類型에 表出된 文化속에 흐르는 精神을 說明.

(15) 傳統 가운데는 繼承할 수 있는 Elements가 있으며, 繼承할 수 없는 Elements가 있다. 繼承할 수 있는 Elements를 意味.

(16)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p15.

傳統繼承을 追求하는 데는 形式追求와 表象意志의 追求 2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17) 建築物의 形態美

韓國哲學會, 哲學思想의 韓國的照明, p286.

理想化된 世界에서가 아니라 建築物의 傳統的인 面에 일정한 技術的 方法的 測定.



SCHAMATA는 SCHAMA의 구성인자가 되어, 外 型的 건축문화 SYSTEM을 형성한다.

- ◎ SCHAMA
- SCHAMATA
- PATTERN LANGUAGE 구성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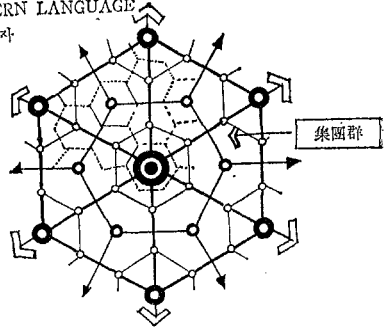


그림 3. Unit Schema

간단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며, 結局 傳統的 繼承이란 Pattern Language와 Schema를 構成하고 있는 遺傳因子로서 結合된 다음과 같은 Diagram으로 역시 說明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Pattern Language를 一般的으로 L_{P_n} 으로 표시하며, System Schema를 一般的으로 S_{S_n} 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어느 集團이나 民族의 모든 精神領域을 $L_{P_1} + L_{P_2} + L_{P_3} + \dots + L_{P_n} = \sum_0^n L_{P_n}$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같은 方法으로 어느 集團이나 民族의 建築文化를 $S_{S_1} + S_{S_2} + S_{S_3} + \dots + S_{S_n} = \sum_0^n S_{S_n}$ 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遺傳因子를 抽出하는데 形式追求와 表象意志⁽¹⁶⁾의 追求로 分類하는 方法論은 사실 不可能한 일이다.

즉 實存하고 있는 價値形態⁽¹⁷⁾와 歷史的 現象化 속에 內在되어 있는 先經驗이 外形的 建築의 테두리 속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昇華되어 있기 때문에 別個로 나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들의 遺傳因子는 生物學的 法則⁽¹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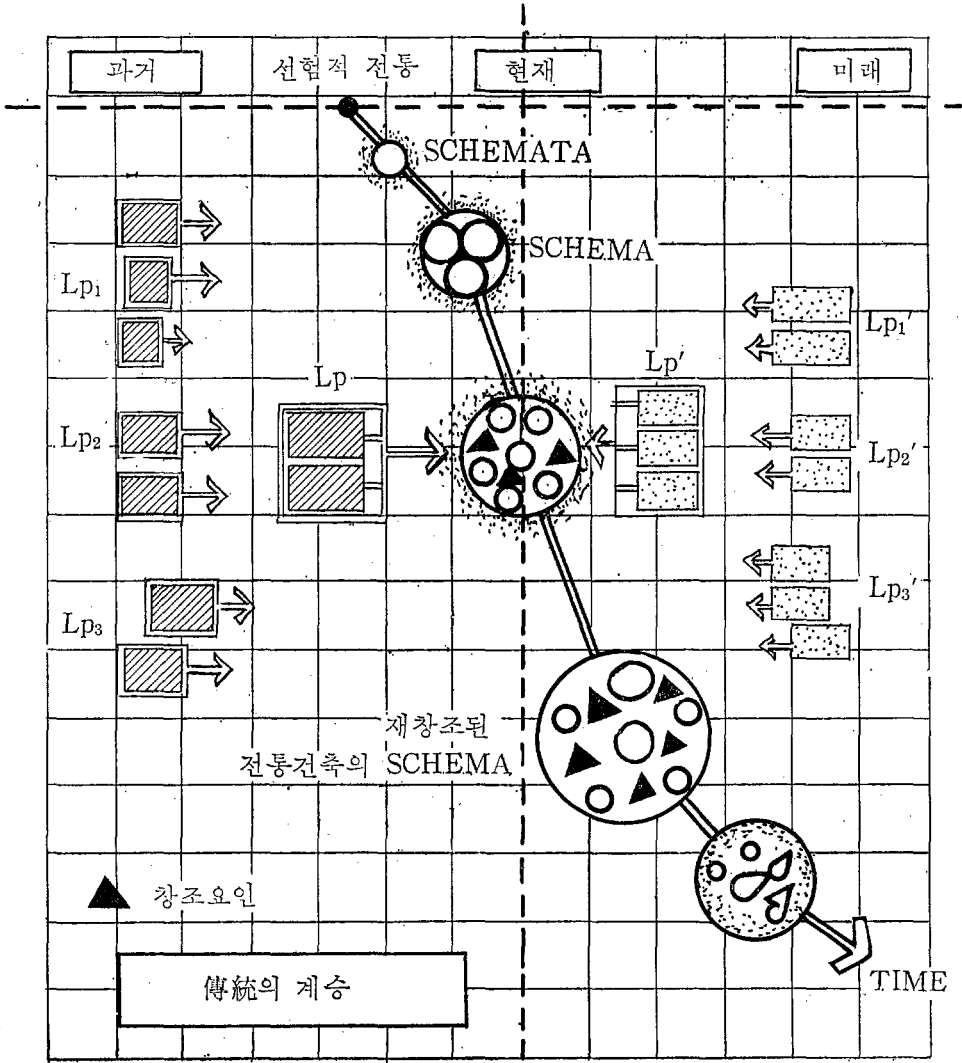


그림 4

建築性的 本質을 가지고 있지만 超有機體⁽¹⁹⁾(Super Organic)的 次元에서는 永遠性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韓國建築의 遺傳因子

5.1. Pattern Language의 種類

이미 說明한 바 있지만 Pattern Language와

System Schema가 意味하는 內容의 差異를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前說은 (1) 우리의 삶의 世界에 바탕을 두고 있는 文化人類學的 『理念의 衣裳』(Ideenkleid)을 말하며, (2) 어느 一定한 集團이 이룩한 理念의 衣裳으로서 建築文化的 基底를 이루고 있고, (3) 이것은 다시 建築文化的 世界는 傳統性的 構造體로서 主觀的 相對的으로 나타날 뿐이다.⁽¹⁸⁾

反面에 後說은 (1) Pattern Language에 依하여

(19) 不死를 意味.

(18) 尹明老의 “現象學과 現代의 狀況의 論考”의 論理的 전개에 따라 적용시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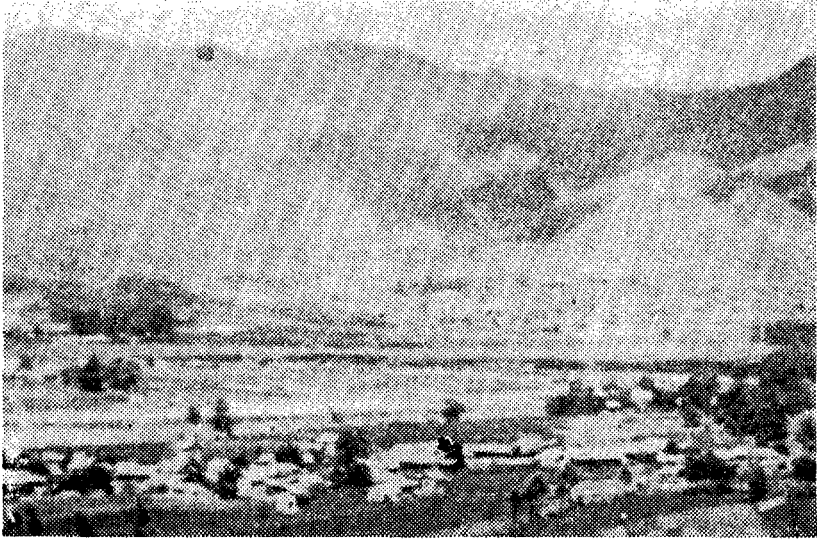


그림 5 人間이 삶을 이루고 있는 設定된 文化類型은 一種의 Pattern Languag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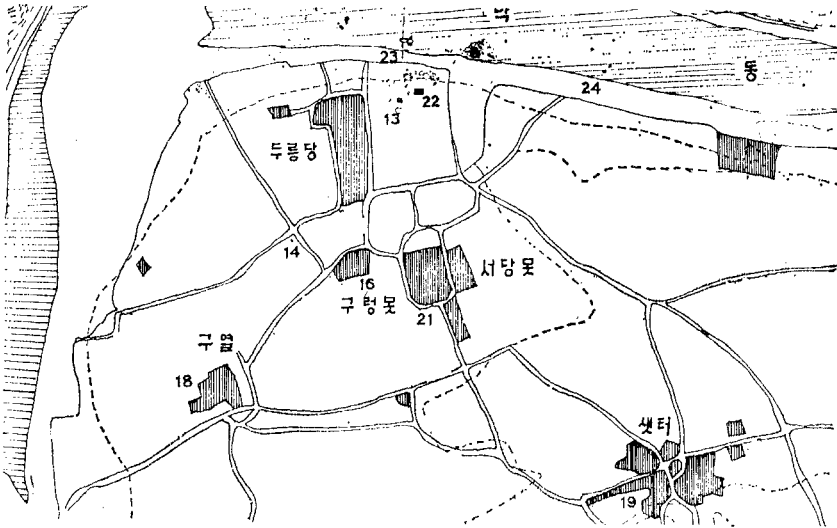


그림 6 設定된 地理的 조건은 Pattern Language의 構成要素가 된다

現象的으로 産出된 同種同質의 集合(Sets)를 意味하며, (2) 同種同質의 集合, 즉 똑같은 機能을 가진 建築物은 技術的, 美的, 方法論的으로 各觀의 測定이 可能할 것이다.

人間은 一定한 集團을 形成하게 되며 그 集團은 그들의 『삶』을 위하여 알맞는 展開方式을 가지게 마

련이다. 展開方式은 文化類型으로서 Pattern Language를 가지고 있다.

Pattern Language 內에는 同種同質의 System Schema가 여러개 포함되어 있거나, 한가지 System Schema가 代表할 수도 있다. 上流住居建築이 모임 集合體는 System Schema를 形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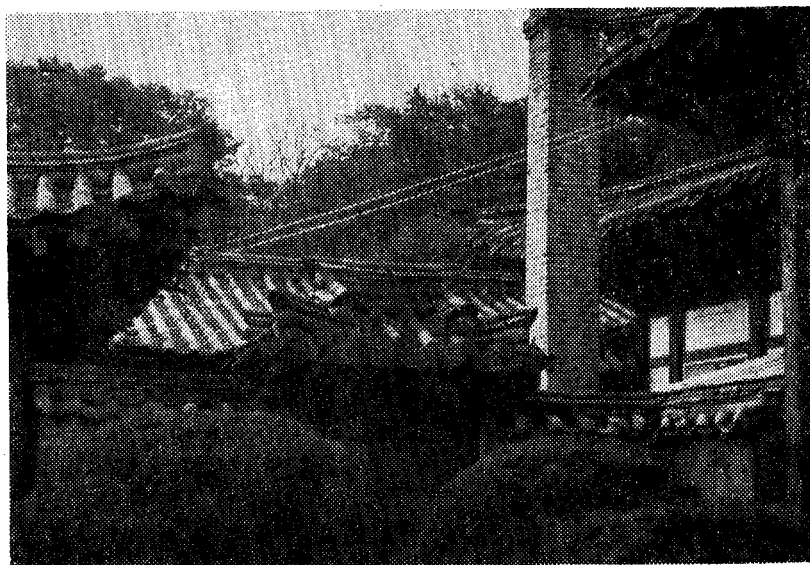


그림 7 구체적인 建築文化는 Schema의 一種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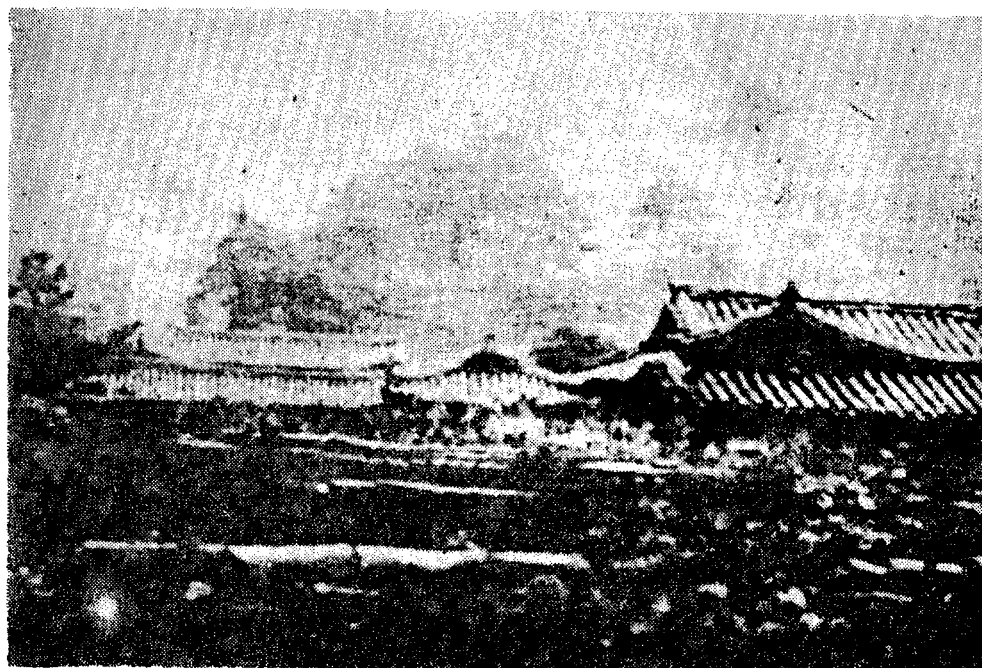


그림 8

지금까지 우리 祖上들이 典型的으로 시도한 Pattern Language를 建築機能面에서 다음과 같은 五가지로 時類한다.

LP_1 ; 宮闈建築, LP_2 ; 宗教建築, LP_3 ; 教育建築, LP_4 ; 祭享建築, LP_5 ; 住居建築 등과 一般客舍建築으로 大別되며 이것을 다시 System Schema로서 細分하면

LP_1 ; 殿閣闕門, 行閣亭榭

LP_2 ; 佛寺伽藍, 佛塔石窟

LP_3 ; 書院, 鄉教, 文廟堂舍

LP_4 ; 寢殿碑閣, 祠堂齊

LP_5 ; 上流住宅, 民家住宅

등으로 色別되어질 수가 있으며, System Schema들은 그들의 獨特한 Properties를 가지고 있으며, 이 Properties를 構成하고 있는 構成因子들이 우리의 삶의 世界를 차지하고 있는 風習이며, 祖上代代로 내려오는 文化라고 表現할 수 있겠다. 이 構成因子들 가운데 Super-Organic한 構成因子들이 遺傳因子(Genotype)이다.

例를 들면 LP_5 ; 上流住宅, 民家住宅를 代表하는 Schema들은 매우 훌륭한 Genotype를 가지고 있는데 實例를 들면 “온돌” “대청마루” “밧마루” “마당” “치마” “토방” “다락방” “별당” “벽장” “石蓮池” 등이 있는데 이들의 建築 Genotype는 오늘날까지 우리네 食卓에서 항상 韓國의 固有한 食道樂을 代表하는 “김치” “짜투기” “된장찌개” “동침이” 등 飲食의 Genotype처럼 우리의 攄情 깊숙이 흐르고 있는 民族의 同質性이며 主體意識의 一種이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民族의 固有한 Pattern Language는 韓國의 空間原型的의 analogy이다.

그러므로 現代建築으로 成長하기 爲한 建築의 Genotype를 技術的 方法論的인 面에서 合理的으로 分析適用해야 할 것이다.

5.2. 配置概念의 遺傳因子(Genotype)

風水地理의 傳統的 理念을 根本的으로 分析하기 보다 實例와 더불어 그 時代에 利用되어진 Design

Factors를 파악하여 現代建築에 應用시키는 일이다 韓國建築에 있어서 配置의 理論的 背景은 風水地理現說이 하나의 Standards로서 應用되어 왔고 地形(Topo-Geo)에 따라 風水地理說은 配置의 價值基準으로서 Territory(局)⁽¹⁹⁾의 象徵性과 位階가 設定되어지고 土地利用(Land Use)과 空間構成(Space Composition)이 實行되어져 왔다.

配置概念을 略述하면 風水의 基本要素는 山·水·方位이다.⁽²⁰⁾ 地勢의 形象을 決定하는 主要構成因子는 靑龍+白虎+朱雀+玄武의 四神과 中央에 穴의 五가지이며, 이렇게 이루어진 地域(Territory)을 聖域(The Sacred)으로 概念化시킴으로서 未知의 世界, 想象의 世界, 天上의 原型이라는 象徵性과 反面에 이 領域을 호위하고 감싸고 있는 外部의 世界는 지우이요 現實이며 俗(The Profane)으로서 形以上學的인 象徵性을 부여받고 있다.⁽²¹⁾

이 地域가운데 中心(Centre)에 자리잡고 있는 穴은 最高의 權威性을 부여받음으로서 空間構成과 分割의 位階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穴을 中心으로 坐向이 成立되며 空間의 方向性, 즉 租山—鎮山—穴—明堂—內水—案山—朝水—朝山으로 이어지는 象徵的인 空間의 軸(The Shaft of space)으로 하여 領域性을 區分하였다.

建物群을 築造한 때 이와같은 局面(Territorialities)의 形勢와 理論이 同一하게 適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例를 들면 穴의 위치에 主建物을 配置하고 前後左右에 行客을 세워 穴을 擁護하였고 穴앞에 前庭을 만들어 一種의 局이 갖는 象徵으로 形成시켰으며 聖域과 外部地域인 俗域은 담장으로 比호하여 聖域으로서 象徵性을 極大化시켰다.

主建物은 聖域의 中心地이므로 主建物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各空間의 位階的 境界를 지나 접근해가는 中心通路를 갖는데 이것은 俗에서 天上原型으로 도달하는 軸線이 마찬가지로 진밀하게 適用되어지고 있다.

上記 內容을 Diagram으로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 張聖浚, 風水地의 局面이 갖는 建築의 想象力에 關한 研究, p16.

俞在賢, 穴과 明堂의 關係를 통하여 본 韓國傳統建築空間의 中心概念에 關한 研究, p103.

二篇의 論文에서 “局”의 傳統的 概念을 同一하게 說明하고 있는바, 즉 穴과 明堂를 中心으로 左靑龍右白虎朱雀玄武가 擁護하는 形勢를 말하며 中心地인 穴과 明堂은 聖域(The Sacred)을 뜻하며 특히 穴은 Center로서 小宇宙의 中心이고, 이곳은 天靈과 交合하는 聖地이기도 하다. 聖域을 주위에서 에워싸고 있는 곳을 俗域(The Profane)으로 聖域의 反對概念이다.

(20) 張聖浚, 앞의 冊, p16.

(21) 앞의 冊, p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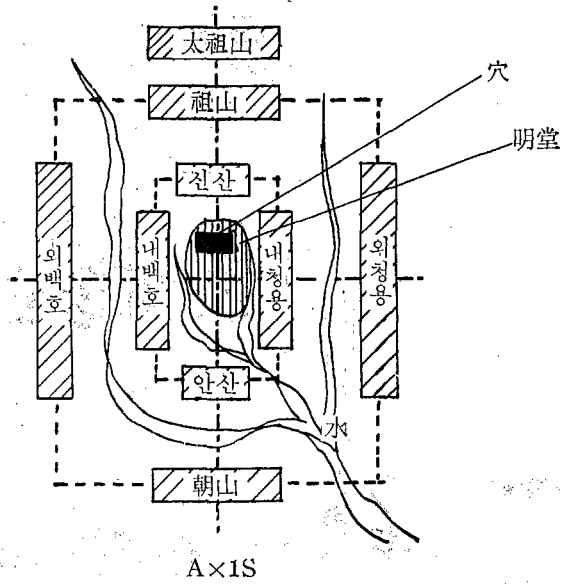


그림 9 山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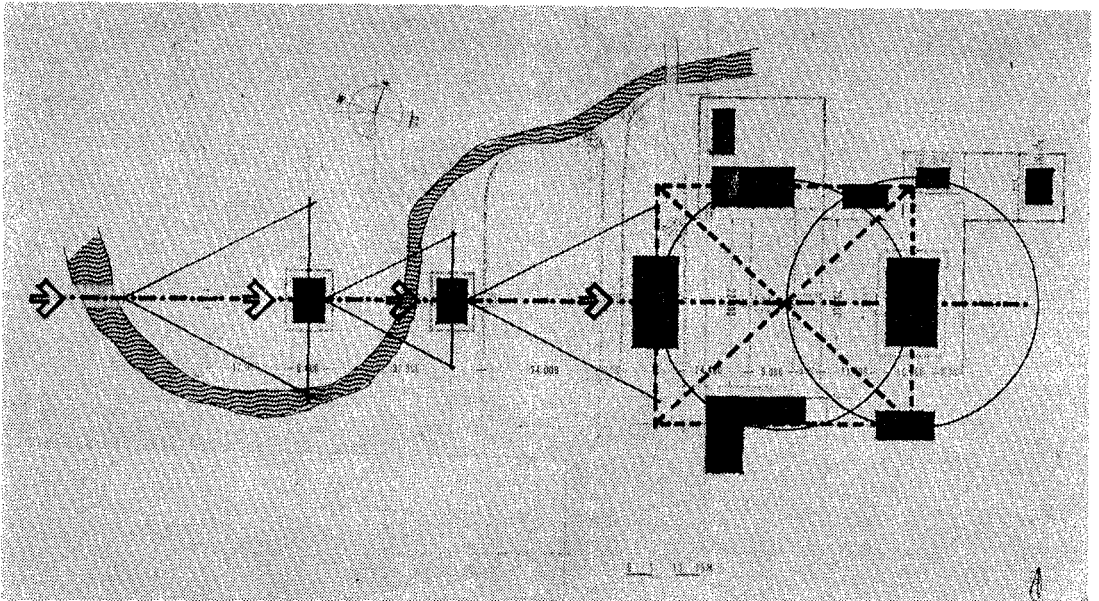


그림 10 雙磎寺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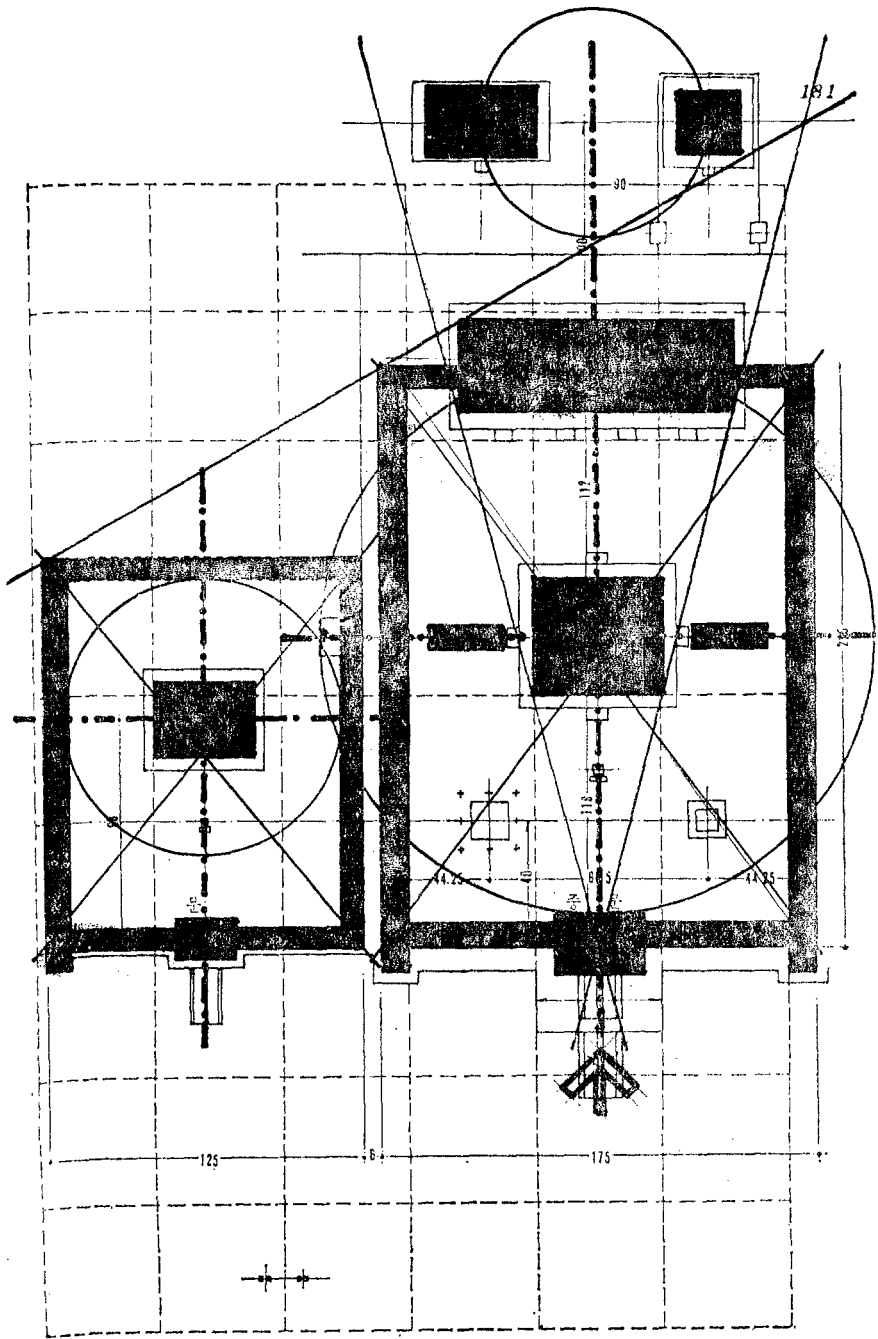


그림 11 佛國寺 配置 復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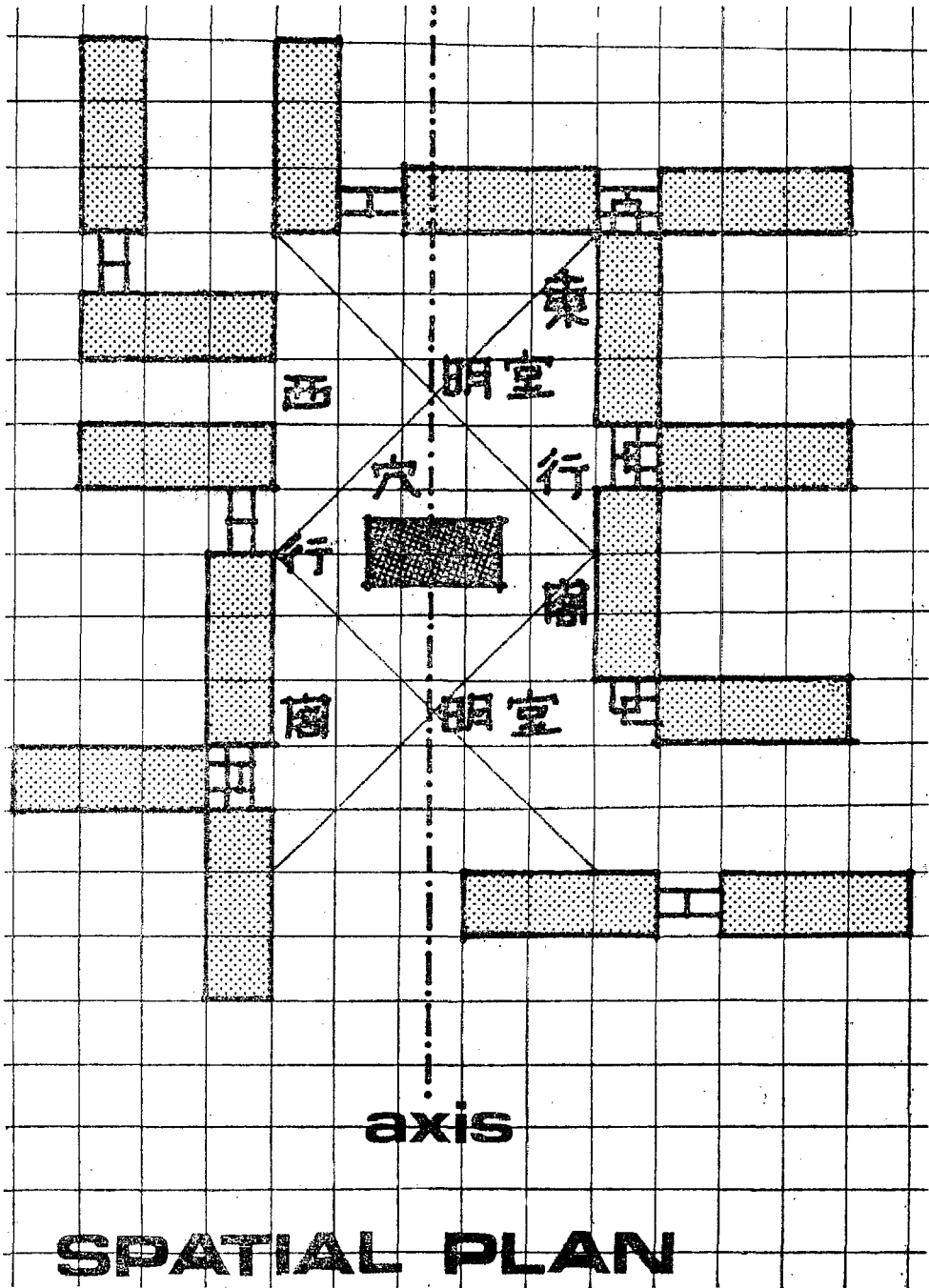


그림 12

風水의 理論은 오늘날 現代建築을 具現시키기 위하여 똑같은 原理로서 適用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象徴的 論理보다는 그 時代에 外形의으로 追求된 形式論理에 더욱 많은 可能性을 두고 싶다.

現代建築으로 繼承시키기 爲한 다음과 같은 過程을 밟아야 한다.

첫째: 人間個人的 人間性(Humanism)을 무시한 채 自然과 神을 中心으로 한 理論을 對象으로 했다
둘째: 局(Territory)은 上下從屬의 位階性과 사아머니즘적 象徴性으로서 그 配置의 原理를 택하고 있는바, 마땅히 現代建築의 哲學的, 社會的 여건에 알맞게 수정되어 建築機能利用에 時代錯誤가 없어야 하겠다.

그러나 現象화된 이들의 配置의 형틀은 훌륭한 遺傳因子임에는 不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5.3. 平面形態와 MAss의 遺傳因子

우리나라의 古代住居 形態는 原始時代의 圓形住居와 新石器時代의 堅穴住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北方系統에서 由來되었다고 한다.⁽²²⁾ 住居形態가 風土와 生活習慣에 의하여 차츰 어떻게 發展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 수 없다.

大部分이 使用된 建築材料는 木材와 회강암으로 특히 木材를 다루는 훌륭한 細工의 솜씨는 韓國人의 銳敏性을 잘 말해 주고 있다.

平面構成을 하는데 매우 多樣한 幾何圖形이 使用되었고, ㄷ, ㅁ字 住居空間에 中庭을 도입한 것은 風水의 象徴構造를 住宅空間에 부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內部空間과 多部空間을 Void시키 自然를 連續시키므로 建築空間을 機能的으로 使用하는데 先人들의 人間的인 “뉘”을 찾을 수 있다.

平面計劃에 있어서 Scale에 關한 Proportion은 一定한 間隔間을 定하고 그 間隔을 基準 Modul로 하여 2×3, 3×5, 5×7를 大部分 利用하였던바, 3:5=1.666으로 黃金比 1.618의 實用類值이며 5:7=1.4는 $\sqrt{2}=1.4142$ 와 비슷한 것으로⁽²³⁾ 平面計劃이 Mass에 이와같은 Proportion의 分割은 傳統建築을 안정된 Scale 感覺으로 完熟히 표현시킨 것이었다.

한개의 建物은 基壇部分, 몸통部分, 머리部分으

로 나눌 수 있으며, 基壇은 역시 風水地理의 理論에 따라 기타 地域과의 位階의 分離로서 現世, 지옥, 俗을 意味하며 머리部分인 지붕은 天上의 神靈과 이어지는 곳으로 지붕의 아름다운 曲線의 生成의 原點을 짐작할 수 있으며, 지붕밑에 복잡한 棋色장식은 구름위에 떠 있는 지붕을 比喩하여 사아머니즘적 象徴化 作用을 더욱 可乘시키고 있다.

外部空間計劃은 알맞은 Human Scale로서 現代建築의 課題中の 하나인 Humanizing Space로서 靜的이며 東洋哲學의 基本인 “道”⁽²⁴⁾의 實存的 理念을 具現시켰던 것은 자손에게 물려준 훌륭한 Genotype임에 틀림없으며, 오늘날 과거에 숨어 있는 先人들의 精神을 찾아 그 原理를 再構成시키는 일이 남아 있다.

6. 結 論

傳統建築의 繼承問題가 建築界에서 舉論되기 시작한 以後 建築家들은 傳統建築의 繼承은 어려운 問題이며 오늘날 建築家들에게 주어진 課題라고 前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傳統建築을 繼承하기 爲한 구체적인 解結方法 以前段階에 머물러 있음을 不認할 수 없다.

그러므로 本小考는 建築計劃的인 側面에서 傳統建築을 分析하였으며 論理分析의 展開過程에 따라 傳統建築에 숨어 있는 遺傳因子(Genotype)을 抽出하였는바, 이들의 遺傳因子들은 現時代의 建築物를 創造하는 過程에서 어떤 形式으로든지 Design Factors로서 決定要因(Chitectural Determinism)으로 作用할 때 繼承된 傳統建築의 一部로서 남게 될 것이다.

反面에 우리는 반드시 民族의 主體性 속에서만이 傳統問題를 論議할 수 있으며⁽²⁵⁾ 純粹한 民族感情으로 우리의 遺産에 대한 有一한 生命력을 認定하며 外部에 대해 自信력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서 적

1. 尹泰林, 韓國人, 玄岩社, 1977.

(22) 尹張燮, 韓國建築史, p31.

(23) 김수인역, 건축디자인의 원경, p19.

(24) 李東植, 人間學과 韓國思想, p52.

2. 韓國哲學會, 哲學思想的 韓國的 照明, 一志社, 1974.
3.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1978.
4. 崔載喜, 칸트의 生涯와 哲學, 太陽文化社, 1977.
5. 崔載喜, 純粹理性批判, 博英社, 1977.
6. 尹張燮, 韓國建築史, 東明社, 1976.
7. 創立 30周年 紀念論文集, 大韓建築學會, 1975.
8. 朱南哲博士學位論文, 朝朝時代 住宅建築의 空間 構成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76.
9. 李光奎, 文化人類學, 一潮閣, 1971.
10. 張聖浚, 風水地理의 局面이 갖는 建築的 想像 力에 관한 考案, 建築學會 제22권 제85호, 1978.
11. 俞在賢, 穴과 明當의 關係을 통하여 본 韓國傳統空間의 中心概念에 관한 研究 UIT Repot 제10 권 제2호, 1979.
12. 김수인역, 건축디자인의 원경, 산업도서출판사
13. 임충진 外 3人, 의인, 섬마을 안동댐 수몰지구 취락형태 현지조사, 울산공과대학 건축과, 연구 논문집 제7권 제2호.
14. 高裕燮, 韓國美術文化史論叢, 通文館刊, 1974.
15. Marcel Brion 外 9人 유근준역, 現代美術, 대한 교과서주식회사, 1969.
16. 朴異汶, 現象學과 分析哲學, 一潮閣, 1979.
17. Clovis Heimsath Behavioral Architecture Mc-Hill 1977.
18. Doxiadis Ekistics Oxford Uni. 1968.
19. ed. Jencks Meaning in Architecture 1970.
20. Leslie J. King Cities, Space and Behavior prentice-Hall 1978.
21. Norberg-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Studio Vista London 1971.
22. Philip Drew Third Generation Pall Mall 1972.
23. Charles Jencks Modern Movements in Architecture A Doubleday Anchor Book 1973.
24. Geoffrey Broadbent Design in Architecture Wily 1973.
25. Heinrich engel the Japanese House charles c. tuttle company 1964.